

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. 9. 23.(수)

“명절연휴 국민안전 빈틈없이”...한성숙 국무총리, 추석 비상근무 중인 경찰·소방 현장방문

- 韓총리, 경찰·소방 비상근무기관 방문해 노고 격려 및 안전관리 강조

- 한성숙 국무총리는 9월 23일(수) 오전,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와 서초소방서를 방문하여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였다.
- 이번 방문은 명절 기간 귀성·귀경인과 등 유동 인구가 급증하는 최일선 현장을 찾아 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, 연휴 기간에도 빈틈없는 안전관리 태세 유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루어졌다.
- 한 총리는 먼저 반포지구대를 방문하여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명절 연휴 치안대책을 보고받고,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들에게 “여러분이 애써주시는 덕분에 국민들이 평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다”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.
- 특히 경찰이 암표거래와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 성과를 발표하였는데, “민생을 챙기는 경찰에 감사하고,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들 덕분에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- 또한 “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임하시길 바란다”고 당부하며, 경찰 지휘부에도 현장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
- 이어 서초소방서를 방문하여 서초소방서장으로부터 명절 연휴 화재예방 대책을 보고 받고,
-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서초소방서 관계자 및 전국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면서,
 - 특히,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경부고속도로 기점이 관할 지역에 위치하여 추석 연휴 기간 이동 인구가 집중되는 만큼,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, 현장 활동 시 대원 안전에 유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.
 - 아울러, CCTV 화재감지, 로봇, AI 시스템 등 기술을 활용한 화재예방, 신속대응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, 전국적으로 확대된 ‘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사업’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소방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.
- 끝으로, 한 총리는 연휴 기간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“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살펴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이라도 더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근무해달라”고 전하며,
- 정부도 경찰과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김부선 (044-200-2082)
		담당자	경 정	이은일 (044-200-8828)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안전환경에너지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장준경 (044-200-2683)
		담당자	소방령	권순직 (044-200-2686)